



WBC 한국 대표팀 오키나와전훈 돌입

2017 WBC 대표팀 선수들이 12일 전지훈련지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대표팀 최고 미남으로 꼽히는 서건창의 다부진 모습, 팬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사인한 이대은, 캡틴을 맡은 김재호의 인자한 미소, 대표팀 '막내' 김하성의 긴장된 표정(맨 왼쪽부터)이 다채롭다.

오키나와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제몫 해줘야 한다"

김인식 감독, 열흘 전훈 구상

3일 훈련 후 휴식…3차례 연습경기 치르며 전력 점검
심창민·김태군·김하성·오승환·오재원 등 대체자 기대

"새롭게 자리를 채운 선수들이 잘해줘야 한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이 12일(한국시간)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이날 훈련장인 구시가와구장 인근 카푸리조트호텔에 여장을 푼 선수단은 13일부터 22일까지 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한 뒤 23일 귀국길에 오른다. 가장 먼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감독은 밝은 표정으로 "오키나와의 날씨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이다"며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최종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의 활약을 관건으로 꼽았다.



일본 오키나와에 입성한 김인식 WBC 감독이 대체자들의 존재감에 주목하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 기존선수들이 대거 교체된 만큼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자들이 제몫을 해줘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감독.

오키나와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짧은 훈련 일정, 김인식 감독의 걱정

김 감독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짧은 훈련일정이다. 기본적인 일정은 3일 훈련 후 휴식이다. 여기에 3차례 연습경기가 잡혀있다. 19일 요미우리(나하 셀룰러스타디움), 21일 LG 2군(이시가와구장), 22일 요코하마(기노완구장)와 차례로 맞대결하며 전력을 점검한다. 그러다보니 열흘 동안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날짜는 6일 남짓이다. 귀국 바로 다음날인 24일에도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다. 김 감독은 "아무래도 일정이 짧을 수밖에 없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운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고민이 필요 없는 시기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단 부딪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팀을 꾸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11월10일 KBO 기술위원회에서 28명의 최종엔트리를 일찌감치 발표했지만, 이후 마감시한인 7일 오전까지 공식적으로 7명이 교체됐다. 이용찬(두산)과 강민호(롯데), 강정호(피츠버그), 김광현(SK), 김현수(볼티모어), 추신수(텍사스), 정근우(한화)가 부상과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이들을 대신해 심창민(삼성)과 김태군(NC), 김하성(넥센), 손아섭(롯데), 박건우, 오재원(이상 두산),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이 합류했다. 특히 대표팀 타선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던 해외파 3명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김인식 감독이 '대체자'에 주목한 이유

김 감독은 "타자들이 많이 빠졌지만, 새로 온 선수들이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특정 선수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새롭게 자리를 채운 선수들의 의욕이 대단하다. 처음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갈 젊은 피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였다. "나도 빨리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기대감이 엿보였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투수진 약체 결코 아니다" 차우찬 강한 자신감…왜?

"개인별 무기 확실…짧은이닝 나눠던지면 문제없다"



12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 도착한 차우찬.

오키나와 | 김민성 기자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이 대회 준비를 위해 11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다. 괌 미니캠프를 마치고 일본으로 입성한 차우찬(LG)은 약체라고 평가받는 투수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대회 투수가 약체라고 평가 받지만 괌에서 훈련해본 결과 개개인이 다 좋다"며 "대회까지 얼마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WBC 대표팀은 선수 구성부터 난항이 많았다. 에이스 김광현(SK)이 수술로 빠졌고, 국가대표 안방마님이었던 강민호(롯데)까지 무릎이 좋지 않아 WBC를 뛰지 못하게 됐다. 해외파 강정호(피츠버그)는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해졌고, 김현수(볼티모어)와 추신수(텍사스)도 소속구단 때문에 불참이 결정됐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이 김광현 대체선수로 발탁됐지만 여전히 약체라는 평가가 많다.

차우찬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유가 있다. 그는 원종현(NC), 임정우(LG), 박희수(SK), 장시환(kt) 등 투수 4명과 함께 괌에서 열린 미니캠프에서 몸을 만들었다. 선동열, 송진우, 김동수 대표팀 코치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열흘간 대회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눈으로 본 투수조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는 "투수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괌에서 본 투수들은 개개인의 무기가 확실하고 구위가 좋다"며 "WBC는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은 이닝을 던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스로도 이를 악물었다. 차우찬은 2013년 WBC 국가대표로 출전했지만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2015 프리미어12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WBC는 또 다르다. 명예회복을 위해 일찍부터 괌에 들어가 담금질을 시작했다. 그는 "시즌을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어깨 보강 훈련과 코어운동 쪽에 집중했다"며 "불펜피칭은 30개, 40개 두 번 했는데 몸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 투구밸런스도 좋았다. 남은 기간 오키나와서 구위를 끌어올리고 개수를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스피또1000 32회차 1등 당첨 실물
2017년 2월 2일(부산 사하구)

나눔 Lotto 6/45 741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7년 2월 11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21	27	34	44	45	16

1등 총 당첨금 1,818,261,575,628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6	3,043,595,938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55	55,338,108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1,829	1,664,07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95,007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619,435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www.ngcc.go.kr

만 32세 김재호, WBC대표팀 최연소 캡틴…"얼떨떨"

"좋은 분위기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

김재호(32·두산)가 역대 최연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대표팀 캡틴으로 선임됐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캠프로 출국하며 "코칭스태프와 논의 끝에 김재호에게 주장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KBO리그와 메이저리그 각 팀에서 모인 스타 선수들을 하나로 이끄는 주장의 역할은 WBC대표팀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재호의 주장 선임은 김 감독에게 많은 변화가 읽혀지는 선택이다. 그동안 대표팀 캡틴 후보는 정근우(35·한화)가 1순위로 꼽혔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격이 밝으며, 대표팀 야수진 중 최고참 중 한명이다. 그러나 부상으로 교체됐다. 김 감독은 "정근우는 부상으로 빠졌고 이대호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용규, 김재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코칭스태프와 회의해 김재호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WBC는 그동안 상징적인 선수들이 주장을 맡아왔다. 2006년 제1회 대회 때는 박찬호, 서재응, 김병헌, 최희섭 등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장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종범이 맡았다. 당시 36세였다.

2009년에는 '전국구 에이스'로 불린 손민한이 맡았다. 당시 34세였다. 2013년에는 포수로 투수와 야수진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역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춘 진갑용이 캡틴이었다. 당시 나이는 39세였다.

김재호는 올해 32세로 역대 최연소 WBC 대표팀 주장이다. 대표팀 내에서도 선배가 많다. 이대호(롯데), 김태균(한화)이 35세며, 오재원(두산), 우규민(삼성)이 같은 1985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 1년 선배다. 이현승(34·두산), 임창용(41·KIA),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등 투수조에 선배가 많다. 장원준(두산)과 이용규(한화)가 동갑이다.

역대 WBC대표팀 주장

연도	이름(소속)	당시나이	포지션	대표팀 감독
2006	이종범(KIA)	36세	외야수	김인식
2009	손민한(롯데)	34세	투수	김인식
2013	진갑용(삼성)	39세	포수	류중일
2017	김재호(두산)	32세	내야수	김인식

두산 주장인 김재호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다. 대표팀 주전 유격수로 그라운드에서 역할도 크다. 자존심만큼 책임감도 강한 대표팀 선수들을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밝은 성격을 갖췄다는 것이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김재호는 이날 오키나와에 도착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보다 선배들이 많고, 경험이 많은 선배가 할 거라 생각했다. 얼떨떨하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만큼 주장이라고 특별히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WBC개근 선수 영광의 숫자 '20'…이번대회 ML올스타출신 '63'

▌숫자로 풀어본 WBC 참가국 엔트리 분석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는 16개국의 최종 엔트리가 9일(한국시간)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ML)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들이 대거 나서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WBC 홈페이지도 각국 엔트리를 분석하면서 흥미를 고취시키고 있다. 숫자로 풀어본 WBC다.

●1 한국대표팀의 현역 메이저리거 숫자.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투수 오승환 1명이다.

●3 ML 사이영상 출신 선수 숫자. 펠릭스 에르난데스(2010년 AL·베네수엘라), 바르톨로 콜론(2005 AL·도미니카공화국), 에릭 가니에(2003년 NL·캐나다).

●4 ML MVP 출신 선수 숫자. 저스틴 모노(2006 AL·캐나다), 미겔 카브레라(2012~2013 AL·베네수엘라), 버스터 포지(2012 NL·미국), 앤드루 매커친(2013 NL·미국).

●5 ML 신인왕 출신 선수 숫자. 핸리 라미레스(2006년 NL·도미니카공화국), 카를로스 벨트란(1999년 AL)과 카를로스 코레아(2015년 AL·이상 푸에르토리코), 버스터 포지(2010년 NL)와 마이클 풀머(2016년 AL·이상 미국).

●9 2013년 우승 멤버 중 이번 WBC에도 참가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선수 숫자. 로빈슨 카노를 비롯해 카를로스 벨트란, 핸리 라미레스, 호세 레이에스, 넬슨 크루스, 카를로스 산타나 등이 참가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15 가장 많은 현역 메이저리거를 내놓은 디트로이트 구단 소속의 선수 숫자(역대 WBC 기록은 2009년 뉴욕 메츠의 16명). 뒤를 이어 뉴욕 메츠가 13명으로 2위이며, 오승환을 내보낸 세인트루이스가 11명으로 3위다. 이어 클리블랜드, 시애틀, 캔자스시티가 11명으로 공동 4위다. 토론토, 애틀랜타, LA 다저스,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뉴욕 양키스도 10명으로 두 자릿수 선수를 내놓았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LA 에인절스, 신시내티는 3명으로 가장 적은 선수를 배출했다.

●20 1~4회 WBC 개근 선수. 한국에서는 투수 오승환(세인트루이스)과 1루수 김태균(한화) 2명이 포함돼 있다. 그 외에 미겔 카브레라와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이상 베네수엘라), 카를롤스 벨트란과 야디에르 몰리나(이상 푸에르토리코), 저스틴 모노(캐나다), 호세 레이에스(도미니카공화국), 아드리안 곤살레스(멕시코) 등도 4개 대회 모두 개근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63 이번 WBC에 참가하는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선수 숫자. 16개국 중 9개국은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19명으로 가장 많고, 도미니카공화국은 10명으로 뒤를 잇는다. 2016년 올스타 중 이번 WBC에 출전하는 선수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